



6면

전북 농식품기업, 중국에 7만불 샘플 수출 계약

전주매일

2020년 9월 9일 수요일 (음 7월 22일) 제261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도, 재난지원금 선지급

호우피해 도민 빠른 일상복귀 선제적 지원 나서 금액 상향 조정... 농민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더해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중첩된 피해를 본 도민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전북도가 재난지원금 선지급 등 보다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위해 정부에 거듭 건의를 해 재난지원금액 상향 조정을 이끌어 주며 등 호우피해 주민을 위한 무이자 융자지원과 함께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하는 등 도민의 아픔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 등 피해가 농가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함으로써 피해 농가의 일상복귀에 힘을 보태 방침이다.

전북도는 지난 7월 28일~8월 11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민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해 도 예비비 31억 6,000만원을 우선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긴급 선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농가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택, 농경지 등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피해농가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전북도가 우선 지급한다는 것이다. 도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1만 5,081세대 194억3,400만원이며 전북도는 선지급을 위한 예비비 31억6,000만원을 긴급 편성했다.

지금까지 사유시설의 피해집계 결과 총 1만 5,081세대가 수해를 입었고 주택과 손 32동, 침수 957동, 농작물 침수 6,858ha, 가축 폐사 31만 마리, 비닐하우스 30,261ha 등 피해액은 총 123억원이다.

도는 재난지원금 선지급과 함께 피해주택 복구를 위한 융자금과 이자자에 대한 지원을 병행해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도민의 간절한 바람에 속도를 더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194억3,400만원 외에 간접지원으로 융자금 85억6,000만원도 별도 지원한다. 피해자에 대한 융자지원금은 농협수협 등 금융기관 융자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국제사재유에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여의,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북도는 피해복구를 위한 자구책뿐 아니라 전국 피해주민의 실질적 혜택을 제고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도시사회의회장인 송하진 도지사가 수차례 정부 등에 제안해 지원금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송하진 지사는 도내 집중호우 수해 현장 곳곳을 찾아가 피해주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청취하고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지원단가 상향조정 필요성을 지난날 10일 총리 방문 및 8월 12~13일 여야 당직자 방문 시 강력

건의했다.

또 지난달 13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한 공동 건의서를 발표하는 등 당, 장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지난 8월14일 행정안전부는 재난지원금 일부를 25년 만에 상향 조정했다.

특히 도내 대다수 이재민이 피해를 본 침수주택의 경우 상향된 재난지원금 200만원과 의연금 100만원을 포함해 주택당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같은 결과로 주택 파손 침수 등 피해를 본 도내 989세대는 상향된 재난지원금을 받아 예년보다 수해복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전국 최초의 농민 공익수당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농민 공익수당을 14개 시·군과 함께 추석 전까지 농가당 60만원씩, 모두 637억원정도를 10만6,000여 농가에 상품권과 카드 등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농민 뿐 아니라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내 수해현장 곳곳에서 현실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민들의 하소연을 들으며 주민들의 상실감이 무엇보다 크다는 것을 느꼈고 이를 위해 전북도에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도록 재난지원금 상향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과 전북도의 긴급 지원 피해복구 무이자 융자지원정책 등이 피해주민의 일상복귀를 돕고 생활안정과 농가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과 전북도의 긴급 지원 피해복구 무이자 융자지원정책 등이 피해주민의 일상복귀를 돕고 생활안정과 농가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중국 주광주 총영사관(전북, 전남, 광주 영사구역) 장청강(張承剛) 신임 총영사가 8일 송하진 도지사를 예방하기 위해 전북도를 방문, 전북의 수해 피해상황을 알고 수해복구 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韓中, 위기 속 빛 발하는 국경초월 우정

주광주 총영사관 신임총영사 전북 방문... 수해복구성금 1000만원 전달

중국 주광주 총영사관(전북, 전남, 광주 영사구역) 장청강(張承剛) 신임 총영사가 8일 송하진 도지사를 예방하기 위해 전북도를 방문했다. <관련기사 3·4면>

제대 총영사로 부임한 장청강 총영사는 코로나19로 취임식을 생략한 채 바로 전북을 찾았고 전북의 수해 피해상황을 알고 수해복구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총영사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총영사의 취임 축하와 함께 올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총영사관과 중국 자매 우호지역이

전북도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구호물품을 보내준데 이어 수해피해 성금까지 전달한데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국경을 초월한 위기극복을 함께 하면서 전북도와 광주총영사관, 중국 자매우호지역과의 연대감이 강화된 점을 강조하고 신임 총영사의 부임을 계기로 전북도의 대중국 협력력이 한 단계 더 발전될 것

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전북도를 처음으로 공식 방문하는 장 총영사는 전북도 송하진 도지사 송지용 의장을 차례로 예방하고 전

북의 대표 명승지인 한옥마을을 시찰하면서 전북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 부임한 장청강(張承剛) 총영사는 남북한 대사관에서 주로 근무한 한반도 전문가이며 임기는 4년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중국 주광주 총영사관은 올해 총영사와 함께 부총영사도 같은 시기에 교체돼 새로운 지휘라인을 갖춘 상태이며 새만큼 한층 단단한 포용한 전북도의 대중국 교류에서 전북도와 새로운 라운드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추석연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단속 강화

내달 4일까지 특별 관리 추진

전북도가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대비해 9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쓰레기 관리를 비롯한 환경오염행위 중점감시 등 환경 분야 특별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추석 연휴기간(9월30일~10월4일)동안 발생하는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추석연휴 쓰레기 특별 관

리대책’을 수립, 오는 10월 4일까지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생활쓰레기와 관련한 불편 민원과 불법 투기 신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연휴기간 동안 도, 시군 처리상황반 및 시군별 기동 청소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시군별로 여건에 맞게 쓰레기 수거일 조정, 음식물 전용 수거함 확대 배치,

지역 주민대상 사전 홍보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터미널 등 쓰레기 상습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무단투기 행위를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추석명절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으로 불필요한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내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오는 15일부터 2주간 추석명절 과대포장 일제점검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주로 포장규격 적용대상 제품 중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식량(중합제품) 등에 대한 선물세트류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반업체에는 1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도는 지난 설 명절 단속으로 1개소에 대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추석 연휴를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 계도, 특별점검 및 순찰강화, 연휴기간 상황실 운영 등 특별 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휴 전(9월 7일~9월 29일)에 중점감시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배출시설별 자가 점검을 유도하는 한편 열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유기용제 취급, 도축·도계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휴기간에는 도와 시군 환경부서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산간 주변과 환경

오염 우려 지역 순찰 및 환경오염신고 전화(128번)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인태 도 환경복지국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군과 함께 분야별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며 도민에게도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및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축! 전주매일 창간

http://council.jinan.go.kr

더 큰 열정으로 진안군민의 뜻을 모아

군민의 생각이 곧 의회의 생각이 되는 진안군의회가 되겠습니다.

항상 열린 의정으로 군민의 말에 귀 기울이고 군민이 원하는 올바른 의회로
진안군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안군의회
http://council.jinan.go.kr

제8대 진안군의회 | 군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바른의회